



2020년 9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ASSET LOUNGE

펀더멘털과センチ멘털 사이에 서서

높은 변동성 속에 위험자산의 상대적 우위

지난 8월 금융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동반 랠리가 나타났던 지난 7월과 달리 위험자산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 반전을 노렸던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 및 코로나 발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등이 주요 금융지표의 높은 변동성을 이끌어냈으나, 월 중반 이후에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었다. 미중 고위층 회담에서 1차 무역 합의를 지켜 가기로 했다는 소식 또한センチ멘털 개선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과 더딘 경기 회복 우려는 현재 진행형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과 경기 낙관론에 대한 의구심 등은 여전히 위험자산의 상대적 우위를 위협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에 해당한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미 대선을 약 2달여 앞두고 보다 극단적이고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데 총력전을 펼칠 개연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코로나19 책임론, 기술 신냉전, etc)에 나서고 있는 것도 대중국 혐오 여론을 이용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승패를 가를 6개 경합지역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7월 4.6%에서 8월 3.4%로, 전국 지지율 격차는 지난 6월 9.4%에서 8월 7.5%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 펀더멘털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 말 이후 코로나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다, 8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단되고, 5차 경기부양안 역시 9월 이후로 지연되는 등 당분간 경기 낙관론이 이어지길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국 경제의 약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전반에서 코로나 발 피로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최근 2주 연속 100만건 상회)나, 컨퍼런스보드의 8월 소비자신뢰지수(2014년 5월 이후 최저치 기록) 등은 고용 및 민간소비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 자산배분의 중립화 전략 유지

글로벌 정책 공조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믿음직스럽지만 실물경제와 위험자산군의 자산가치와의 괴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배분의 목적을 감안할 때 다소 부담스럽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9월 역시 자산배분의 중립화 전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미세조정 차원에서 투자등급 크레딧은 1단계 비중 확대로, 하일드 크레딧은 중립으로 각각 1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Asset Allocation

2020년 3분기 Vol.27-2



Economist/자산배분 나중혁
02-3771-3638
jhna73@hanafn.com



대체투자/자산배분 김훈길
02-3771-7528
kim.hg@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글로벌 자산배분 비중

자산구분		단기(분기) 투자매력도	전월 대비	3Q20 자산배분 비중	투자 포인트	자산 내 상대가치
자산그룹	자산군					
주식	국내	★★★★☆☆	-	12.8%	기업 실적 발표 이후 모멘텀 소강 국면 진입. 정책 모멘텀이 남아 있지만 이미 지수 상승 과정에서 선반영. 최근 진행된 달러약세가 외국인 순매수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	반도체/인터넷
	선진국	★★★★☆☆	-	16.5%	최근 미국 시총금리 상승을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가치주 상승 반전. 다만 경제성장률과 연준 정책상 시총금리 상승에는 한계가 있음. 성장주는 조정 이후 재상승 가능 전망	미국>유럽>일본
	신흥국	★★★★☆☆	-	11.1%	코로나의 실물경기 영향 장기화로 수요 둔화. 다만 약달러와 원자재 가격 강세로 수급 환경은 우호적. 국가별로 IT/원자재 컨셉 국가 우위. 중국은 내수 주도 경기회복 가시화 속 대형주 중심 상승	중국>대만>인니>인도
국채	국내	★★★★☆☆	-	14.1%	미 연준의 채권매입 속도조절과 국내 4차 추경 우려, 2021년 대규모 국채발행계획 발표 경계 등으로 채권금리 약보합 예상	중기채
	선진국	★★★★☆☆	-	10.7%	수급부담과 지표반동, 추가 부양책 관련 기대가 금리 반동 요인으로 작용. 9월 FOMC에서 물가목표제 변화 가능성 높아지며 시장 방향성 변화할 전망	중장기채
	신흥국	★★★★☆☆	-	5.2%	신흥국 정책여력에 대한 차별화 인식 지속.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통화가치의 단기반등 가능하나 전반적인 회복속도는 선진국 대비 지연될 것	신흥 달러채권
크레딧	국내	★★★★☆☆	-	4.7%	시장금리상승에 따라 신용스프레드의 축소여력 발생. 다만, 시기적으로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캐리워주의 접근 필요	여전채
	투자등급 (IG)	★★★★☆☆	↑	4.2%	연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신뢰로 약세 압력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변화와 금리 레벨 하락에 따른 캐리 메리트 부각 지속	소비재 기업
	하이일드 (HY)	★★★★☆☆	↑	1.7%	하이일드 역시 정책 기대에 따른 안정 기조 이어질 것으로 예상. 다만 내년 연초까지 부도율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 필요	하이일드>시니어론
대체투자	원자재	★★★★☆☆	-	1.8%	코로나19 불확실성 상존하나 원유 수요가 점차 회복되며 유가 안정세 이어질 것. 금 가격은 저금리 환경과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 기대	금
	리츠	★★★★☆☆	-	2.2%	최근 자산시장 반등에 따라 부동산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회복세. 다만 투자판단에 있어서는 추가적 모니터링과 함께 당분간 관망 필요	특수목적 리츠
유동성		★★★★★★☆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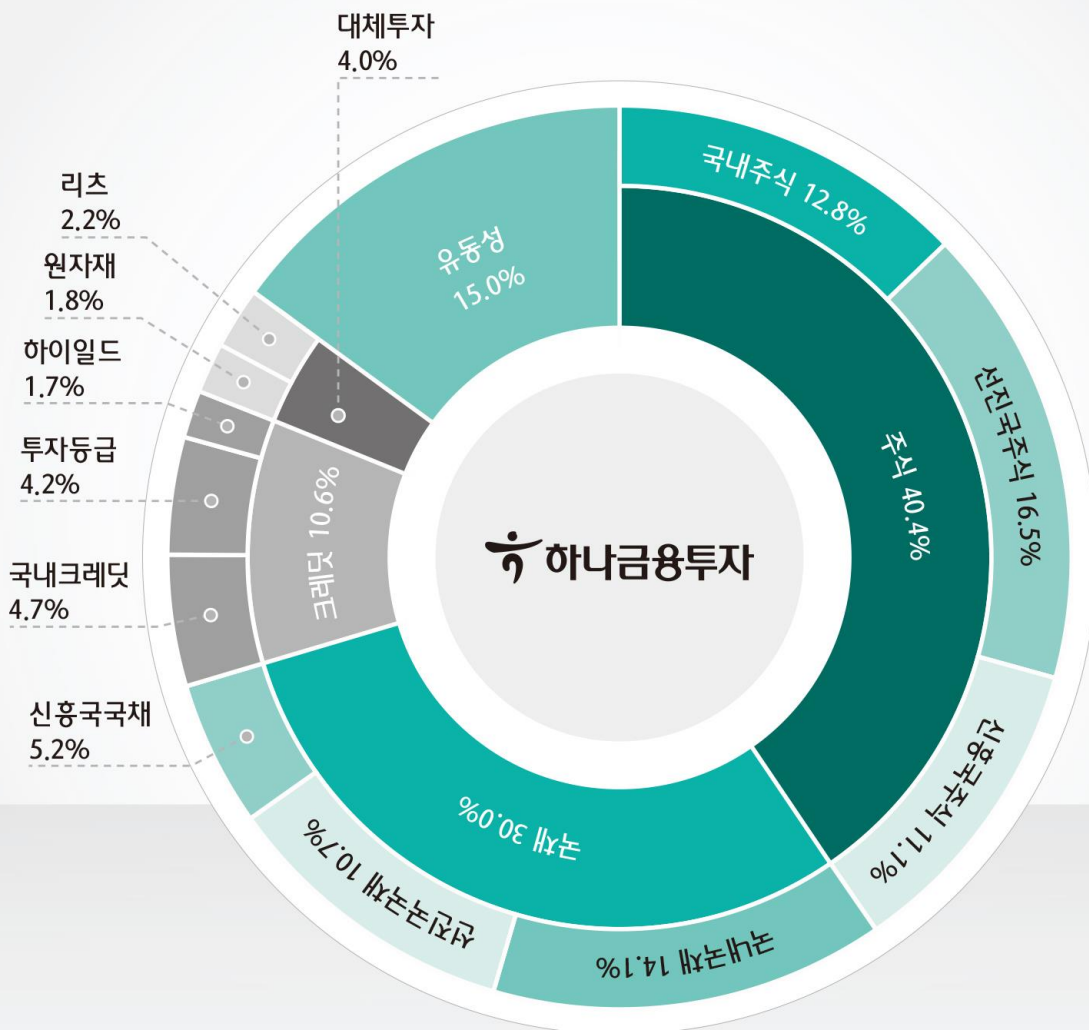
주1: 매분기 말 발간하는 글로벌 에셋 라운지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이 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말 업데이트할 예정

주2: 하나금융투자의 자산별 투자선호도를 채워진 별(★)의 개수로 표시. 7개 중 4개가 중립

투자매력도는 현 시점 이후 3개월 예상수익률 기준 (1년 예상수익률 기준 선호도는 분기 말 글로벌에셋 라운지에 제시)

주3: 자산 내 상대가치는 각 자산별로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

2020년 9월 글로벌 자산배분 비중



성과분석

8월 포트폴리오 퍼포먼스 점검

변동성 안정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 상승 지속 | 김훈길 02-3771-7528

8월 중순 FOMC의사록 공개시점 전후해서 글로벌 증시 다소 주춤했지만 상승추세 자체에는 큰 변동 없는 상황. 다만 일시적으로 달러강세 나타나며 신흥증시 대비 선진증시 우세. 한 달 동안 MSCI 선진지수 6% 이상 상승하는 동안 신흥지수는 2.17% 상승에 머물러. 경기부양책 도입 관련 국채발행 물량에 대한 우려로 시장금리는 상승. 국내, 외 채권자산에서 모두 손실발생. 유가 순조로운 상승 속에 원자재 인덱스 반등했으며 리츠인덱스도 월간 2.54% 상승.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월간 수익률 1.58% 기록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8월 성과

자산그룹(BM)	8월 비중	자산군	8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0.8%	국내	12.9%	KOSPI	3.36%		
		선진국	16.7%	MSCI WL	6.12%	5.63%	4.16%
		신흥국	11.2%	MSCI EM	2.17%		
국채 (JPM GBI BI)	30.0%	국내	13.9%	국채+통안채(자체합성)	-1.29%		
		선진국	10.9%	JPM GBI BI	-0.35%	-0.35%	-0.79%
		신흥국	5.2%	JPM GOV BI EM	-0.38%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0.3%	국내	4.9%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37%		
		투자등급	3.8%	Bloomberg Global IG	-0.72%	-0.72%	-0.25%
		하이일드	1.6%	Bloomberg Global HY	1.22%		
대체투자 (S&P GSCI TR)	3.9%	원자재	1.8%	S&P GSCI TR	4.97%	4.97%	3.66%
		리츠	2.1%	FTSE REITs	2.54%		
유동성(Cash Index)	15.0%	유동성	15.0%	KRW Cash Index	0.02%	0.02%	0.02%
전체수익률						2.32%	1.58%
연초대비 수익률						1.58%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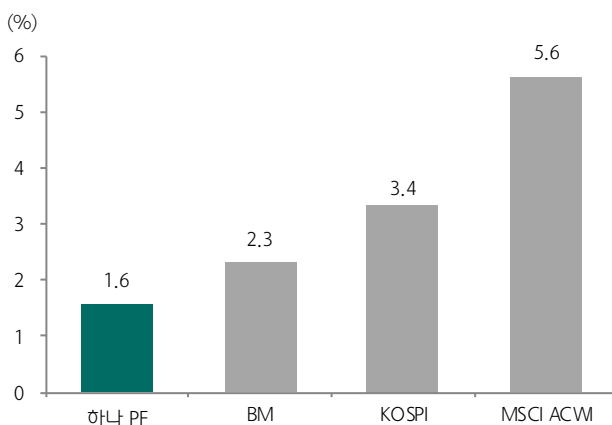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9월 리밸런싱

자산그룹(BM)	8월 비중	9월 비중	증감	자산군	8월 비중	9월 비중	증감
주식 (MSCI ACWI)	40.8%	40.4%	-0.4%	국내	12.9%	12.8%	-0.1%p
				선진국	16.7%	16.5%	-0.2%p
				신흥국	11.2%	11.1%	-0.1%p
국채 (JPM GBI BI)	30.0%	30.0%	-	국내	13.9%	14.1%	0.2%p
				선진국	10.9%	10.7%	-0.2%p
				신흥국	5.2%	5.2%	-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0.3%	10.6%	0.3%	국내	4.9%	4.7%	-0.2%p
				투자등급	3.8%	4.2%	0.4%p
				하이일드	1.6%	1.7%	0.1%p
대체투자 (S&P GSCI TR)	3.9%	4.0%	0.1%	원자재	1.8%	1.8%	-
				리츠	2.1%	2.2%	0.1%p
유동성(Cash Index)	15.0%	15.0%	-	유동성	15.0%	1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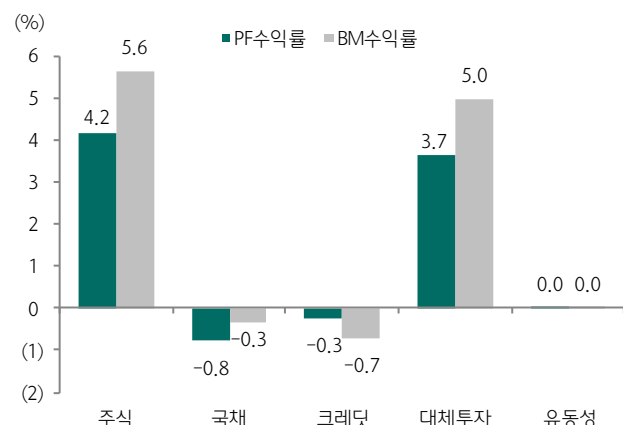
자료: 하나금융투자

각 자산그룹별 8월 성과 (BM 비교)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8월 성과와 시장 인덱스 비교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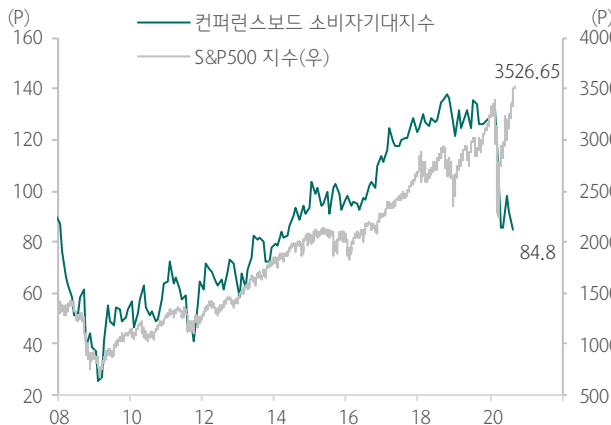
자산전략

글로벌 자산배분(Global Macro)

편더멘탈과センチ멘탈 사이에 서서 | 나중혁 02-3771-3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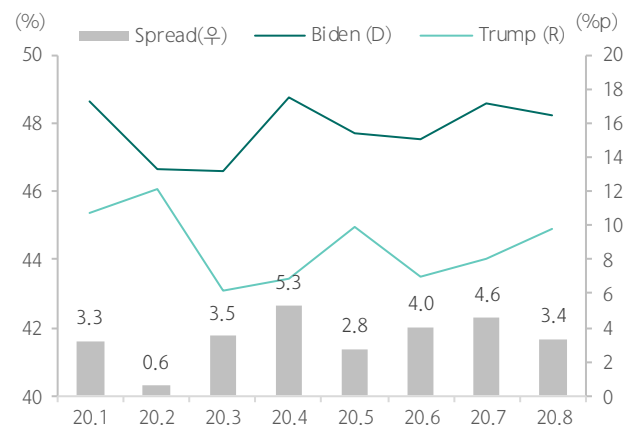
9월 금융시장은 미국 발 정치 및 편더멘탈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계. 지난 8월 한달 동안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위험자산의 랠리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형인 트럼프 발 정치 불확실성과 경기 낙관론에 대한 의구심 등은 여전히 위험자산의 상대적 우위를 위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만한 변수. 특히, 편더멘탈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미 대선을 약 2달 앞둔 트럼프 진영에서는 여론에 편승한 보다 극단적인 승부수를 펼칠 개연성이 있음.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배분의 기본 취지를 감안하여 자산배분의 중립화 전략을 유지하기로 결정

미국 실물경제와 주식시장 괴리에 대한 부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6개 경합지역에서의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주: 지지율은 월별 여론조사 기관 결과의 평균치 사용

자료: Realclearpolitics,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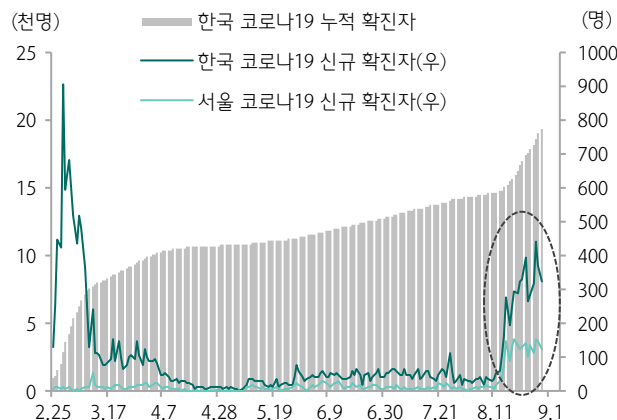
경제

글로벌 자산배분(Global Macro)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과 한국 경제 여파 | 전규연 02-3771-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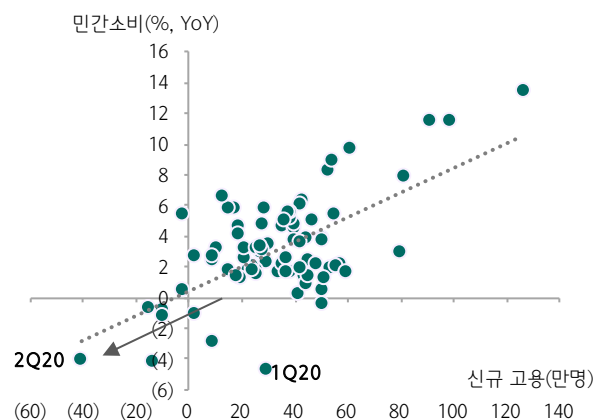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국내 성장을 하향 조정 불가피. 향후 한국 경기의 방향은 3단계 격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방역 체계가 유지된다면 성장률은 2020년 연간 -1.5% 수준 전망. 5개월 연속 신규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증가율도 감소세. 고대면접업종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요원할 수 있어 고용 및 소득 부진이 소비를 제한하는 악순환고리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 다행인 점은 글로벌 경제활동의 재개가 완만하게나마 지속된다면 코로나19 발병 초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이에 대외부문은 글로벌 경제의 나йки형 회복세를 따라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전망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중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고용 및 소득 부진은 추가적인 소비 약화로 이어질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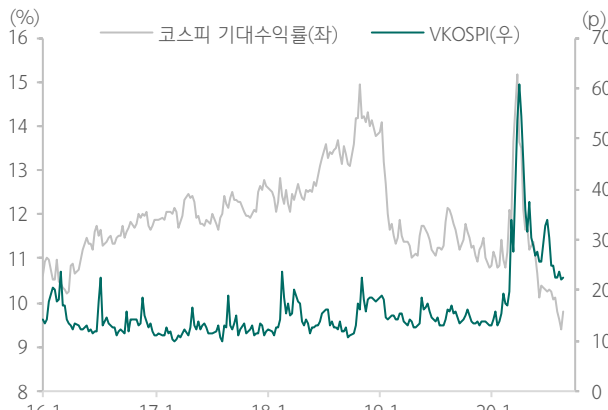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국내주식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추격자 | 이재만 02-3771-7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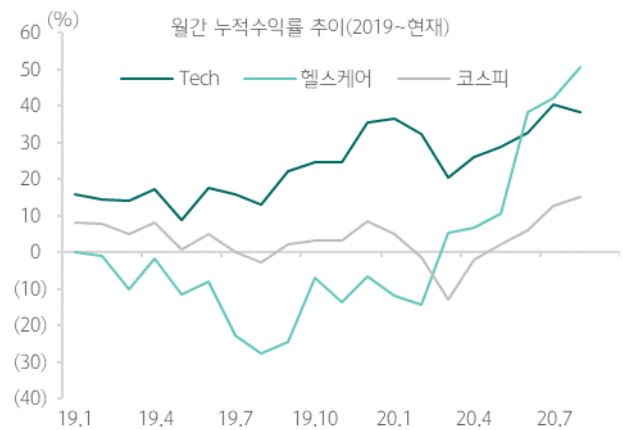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MSCI 한국 증시 비중 조절(대형주 축소)로 인해 지수 상승 이후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 정책과 이익 모멘텀 소강 국면이고, 지수 기대수익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확대 시 투자심리 불안 가중. 다만 연준(Fed) 정책 기조가 장기 저금리 유지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어 현재 성장주도주(헬스케어, 2차전지, 인터넷)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저금리/성장주/나스닥 중심의 강세에 변화가 없다면, 지수 조정은 주도주 비중 확대에 대응 필요

코스피 기대수익률이 낮은 상황. 지수 변동성 확대 요인



자료: Quantwise, 하나금융투자

저금리/성장주 구조는 유효. 지수 조정 시 주도주 비중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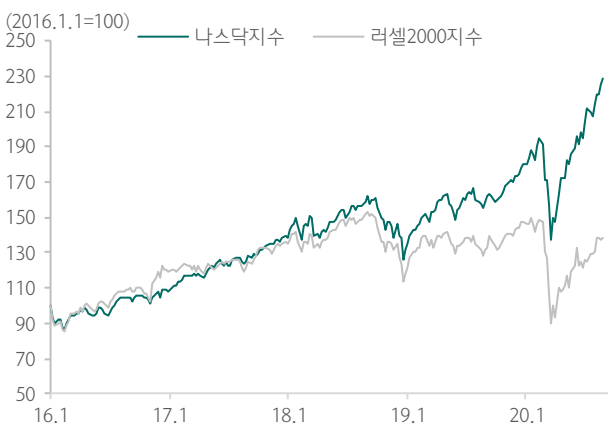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하나금융투자

선진주식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저금리와 성장주 중심 강세 | 이재만 02-3771-7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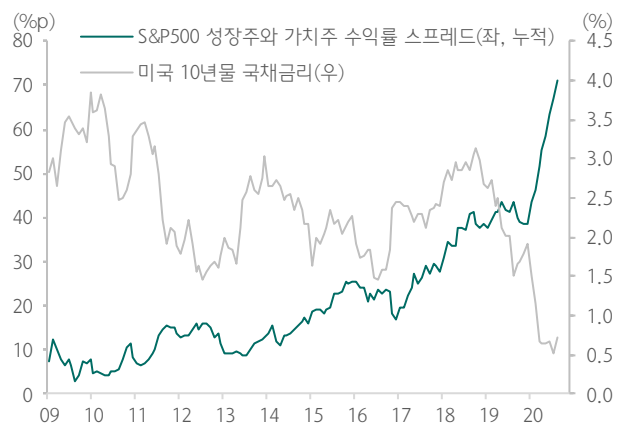
최근 미국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치주 반전. 그러나 연준(Fed)의 정책 기조가 장기 저금리 유지를 시사하고 있어 저금리/성장주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물론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 지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나스닥 성장주 기업 중심의 강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국 기업의 이익추정치 개선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저금리/성장주 중심의 강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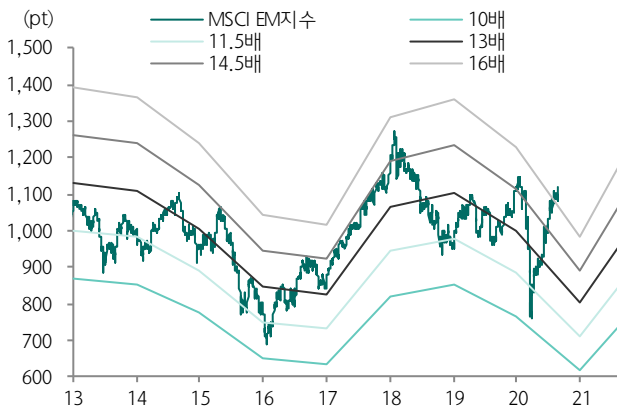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신흥주식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경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 정진수 02-3771-3453

신흥국 증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IT 호경기가 주도하는 이익 개선은 긍정적. 다만 밸류에이션 과열이 상단을 제한하며 가격 부담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 가능성 상존. 회복된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향후 신흥국 경기 펀더멘털 회복의 근간이 될 전망. 중국은 내수 성장 드라이브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경기 모멘텀을 축적해 나가는 중. 국가별 증시 선호도는 가장 정상적인 경로로 경기 회복을 선행하는 중국이 최선호 국가, 이어 IT 제조업 밸류체인과 수출의 접점에 있는 인도/대만/베트남 증시도 선방할 전망

MSCI EM지수 PER밴드 상단 돌파, 밸류에이션 부담 구간 진입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중국, 제조업 재고조정 가속화와 P/Q 동반 회복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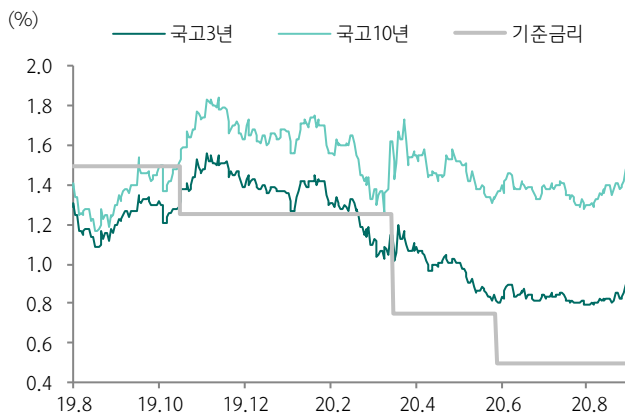
자료: Wind, 하나금융투자

국내채권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4차 추경 불확실성 해소, 외국인 매도 진정되며 금리 고점 형성 예상 | 이미선 02-3771-7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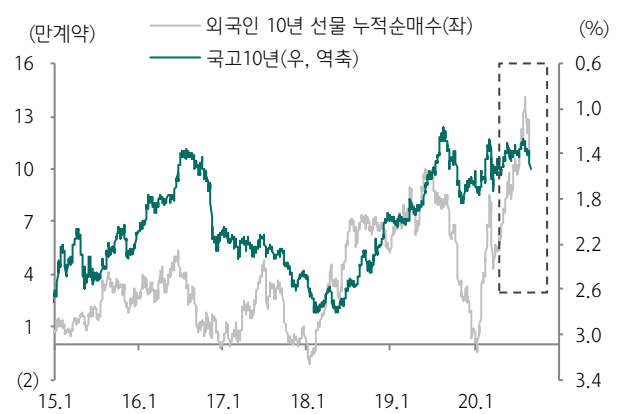
8월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을 -0.2%에서 -1.3%로 하향했지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고 외국인은 대규모 누적했던 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 코로나 재확산으로 4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우려도 투자심리를 위축. 4차 추경 규모 발표로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어야 채권금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 외국인 매매는 추세를 가지고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매도는 1~2주 더 지속될 전망. 9월 국고3년 0.84~0.98%, 10년 1.40~1.60%

채권금리, 추가 금리인하 기대 소멸, 공급증가 우려로 상승



자료: 인포맥스, 민평3사, 하나금융투자

외국인, 10년 선물 대규모 누적 순매수 상태에서 포지션 청산 시작



자료: 인포맥스, 하나금융투자

해외채권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미 연준의 정책 구체안 확인 과정에서 중장기 금리의 상승 압력 완화될 전망 | 박승진 02-3771-7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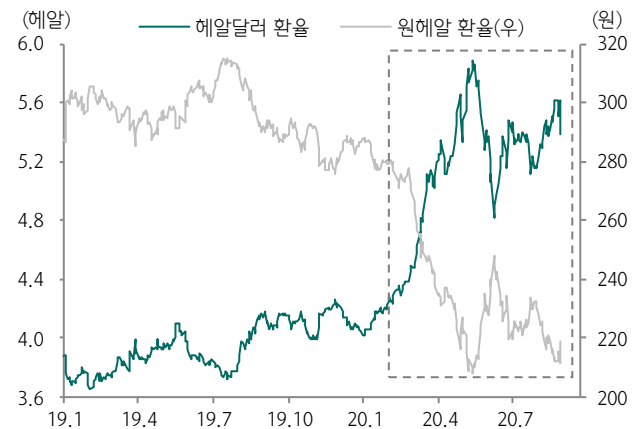
9월 FOMC 통해 미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재확인 전망. 포워드 가이드언스 및 자산매입 방안을 통해 중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2023년 점도표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며 저금리 장기 기조를 재확인하고, 재정 정책으로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기 구간 국채 매입 계획 준비될 전망. 브라질 헤알화는 재정지출 제한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의회, 경제부 장관의 불협화음이 이슈가 되며 등락 반복. 게지스 경제부 장관에 대한 지속적 신임 기대가 헤알화 하단을 제한할 것

연준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해 미 금리의 상승 속도가 제어될 전망



주: 10년 만기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브라질 헤알화, 재정 관리에 대한 정책 변경 전망 추이에 따라 금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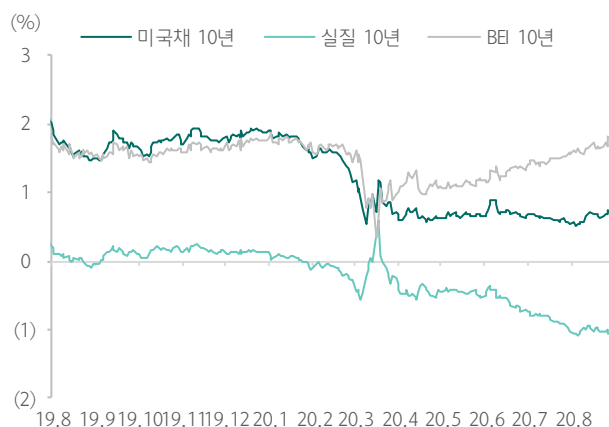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국내크레딧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위험관리 | 김상만 02-3771-7508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시장금리의 반등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연준의 정책스탠스는 내용상으로는 그간의 완화적인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자극을 통한 실질금리를 하향하는 과정에서 명목금리 또한 상승압박을 받는 과정이 진행. 그에 따라 횡보세를 보이던 신용스프레드 또한 당분간 강세를 보이기 힘들 전망. 최근 강세를 보였던 회사채 또한 수급부담 및 연말효과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장세의 전개로 횡보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영역별로는 섹터는 단기약세가 두드러진 여전채를, 만기는 국채커브 스티프닝에 따라 단기물을 상대적으로 선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명목금리에 부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 vs.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주: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AA-/3Y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금융투자

해외크레딧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크레딧 시장. 유동성 효과와 상대적 금리 메리트로 반등 재개 전망 | 박승진 02-3771-7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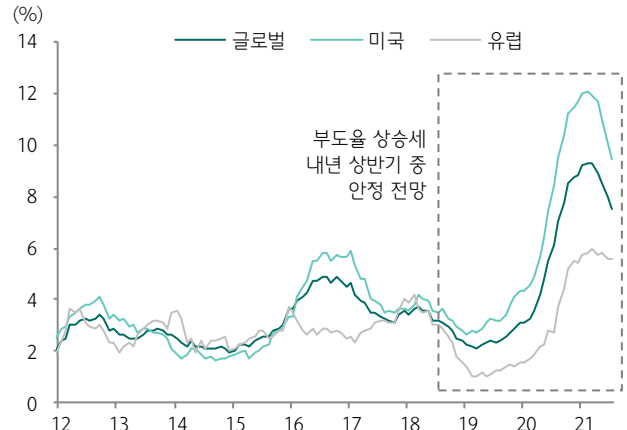
연준의 회사채 매입 기조가 약화되면서 투자등급 채권의 스프레드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모습. 펀더멘털 호전 강도가 둔화되는 사실 자체는 크레딧 시장의 부담 요인이거나, 이 경우 정책 발(發) 유동성 공급을 바탕으로 수급 개선이 예상되고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은 추가 반등 가능 요인. 풍부한 유동성과 전반적인 금리 레벨 하락의 반사 이익 전망을 바탕으로 크레딧 시장은 기간 조정을 거친 후 완만한 반등 재개될 것으로 예상

미국 투자등급(IG), 하이일드(HY) 회사채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 전망치. 내년 상반기 중 반락 예상



주: 2020년 8월 이후는 무디스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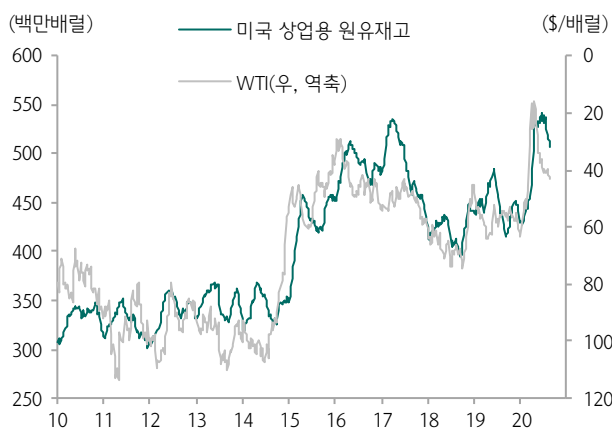
자료: Moody's, 하나금융투자

대체투자 자산별 전략(Global Micro)

안정기에 접어든 원자재 시장 | 전규연 02-3771-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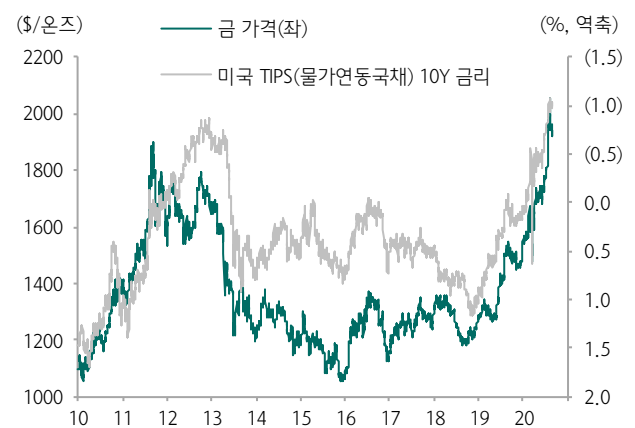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원유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전망. 상당한 수준으로 쌓였던 원유 재고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 다만 수요 증가분만큼 미국과 OPEC+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어 초과공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며, 유가 상단은 제한적인 수준 기대. 한편 미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고,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해 금 가격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경제활동 정상화로 원유 재고 줄어들며 유가의 완만한 상승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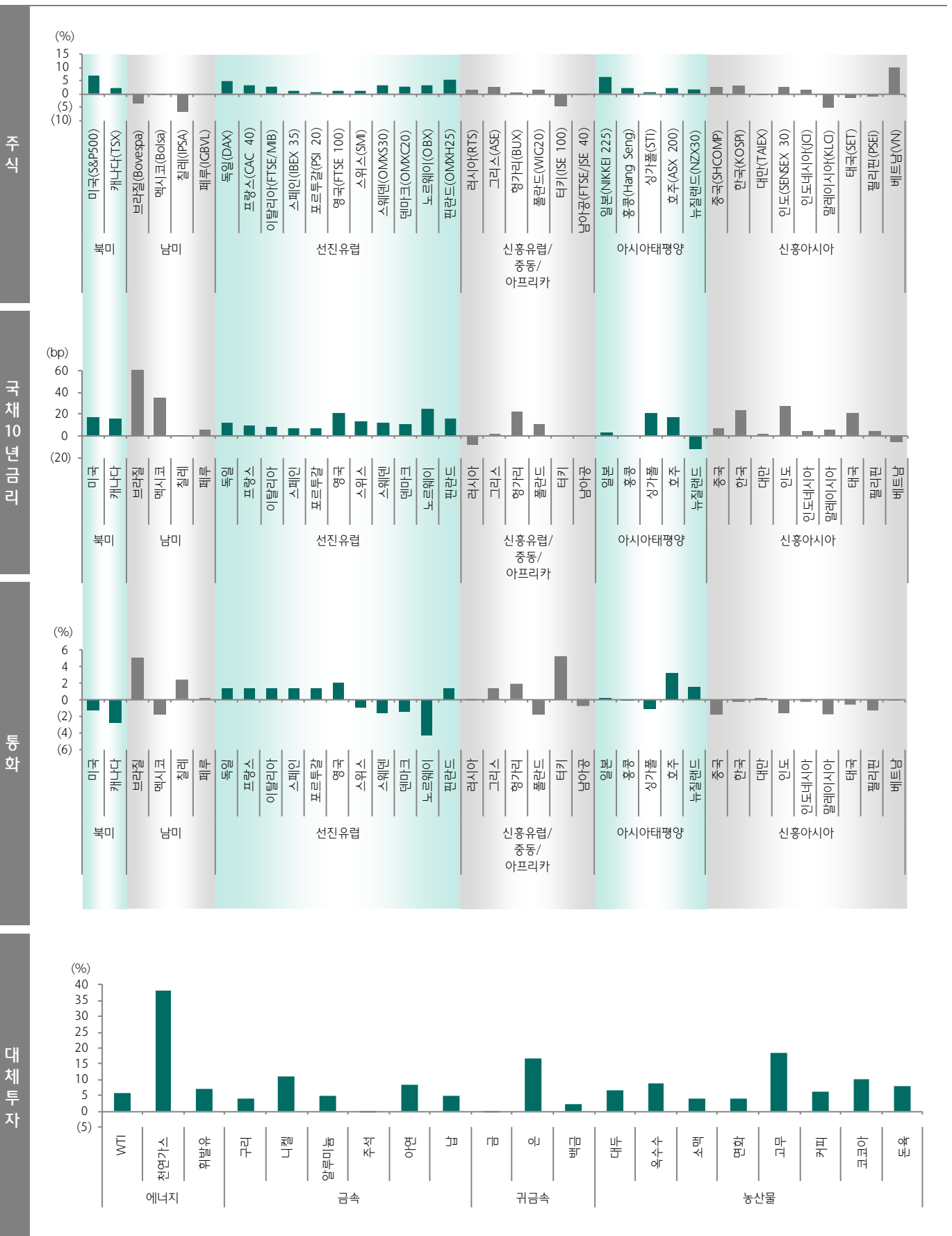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유지되며 금 가격 상승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8월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주: 총수익률 기준 (대체투자는 모두 USD 성과, 그 외 자산은 해당통화 성과)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18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국내주식 외국인 순매도 전환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8월 각각 4.6%와 3.2% 상승. 연중 최고치 경신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상승폭 일부 반납
- 성장주 상대적 강세 지속. LG화학 등 2차 전지 테마 강세가 지속되며 화학 업종 아웃퍼폼
- 그외 전기차 및 수소차 기대감에 현대차 강세, 자동차 업종 상승에 일조
- 전반적으로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순매수 지속.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우위 전환

해외주식 유동성 랠리 지속

-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며 우호적인 환경 지속
-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 전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및 실적 호조에 자금 유입이 지속
- FANGG 기업,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
- 테슬라와 애플은 주식 분할 발표가 호재로 작용

국내채권 재부각된 공급 부담과 금통위 실망감에 금리 상승

- 8월 말 기준 국고3년과 10년 금리는 0.95%, 1.53%로 7월 말 대비 3년 금리는 1.5bp, 10년 금리는 2.3bp 상승
- 8월 국채 시장은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악화되자 펀더멘탈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 그로 인한 재정 확대와 국채 공급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으며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 제공.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경계감도 금리 상승에 일조
-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금리에 상승 압력 제공. 또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 점도 글로벌 장기 금리의 상승을 촉발

해외채권 정책 의구심 부각되며 선진국 국채 금리 반등. 신흥국은 정책 여력에 따른 차별화 지속

- 선진국의 시장 금리는 재정정책에 의한 수급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상승. 미국과 독일 모두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 FOMC, ECB 의사록과 더불어 잭슨홀 연설에서 구체적 정책 기준과 매입안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채권시장의 실망으로 연결
- 연준의 정책 속도 조절 영향으로 IC 채권 스프레드 축소 기조는 감속 국면에 진입.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HY가 상대적 강세
- 신흥국은 국가별로 통화정책 여력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장금리 차별화 지속되는 모습

대체투자 국제유가는 박스권 행보, 금은 사상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 나타나

- 국제유가는 변동성 제한된 가운데 배럴당 \$40~\$45(WTI 기준)의 박스권 안에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지속
- 8월 하순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내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일시적으로 부각됐으나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며 관련 이슈 소멸
- 금 가격은 미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마이너스폭 확대에 힘입어 8/7 온즈당 \$2,089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다만 이후 미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위험자산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금 가격은 일부 조정 장세가 전개됨